

완성차업계, 임단협 갈등 고조 현대차·한국지엠 등 파업 기로

현대차 노사, 집중교섭 돌입
파업 현실화 시 車산업 전반 영향
“노조,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

국내 완성차 업계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놓고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 만형적인 현대차 노동조합(노조)이 파업을 예고하면서 기아를 비롯한 한국지엠 등 완성차 업계 전체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판매량 확대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오는 10~11일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가 각각 4시간씩 부분 파업을 진행한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앞서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금요일 4시간만 근무하는 주 4.5일제 근무제 도입도 요구안에 담았다. 현대차 노조가 근로시간 단축을 공식 요구

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현대차는 지난 4일 진행된 11차 교섭에서 ▲기본급 10만6000원 인상 ▲성과급 350%+15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100% ▲주식 총 25주 지급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이 같은 안을 거부했다. 노조는 파업을 예고했지만 회사와 협상은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현대차 노사는 8일과 9일 집중 교섭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본급과 성과급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를 도출한다면 파업을 유보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지난 2일 첫 상견례를 가졌던 기아도 현대차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가 전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금요일 4시간 근무제,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시기와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요구했던 것처럼 기아 역시 비슷한 요구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녀 출생에 따른 경조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자녀 출생 경조금은 기존 100만원(셋째 500만원)이었지만 노조는 첫째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2000만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임단협을 둘러싸고 노사간 갈등이 극으로 치달고 있다. 한국지

엠 노조도 기본급 상향,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로 임단협을 진행 중인 한국지엠지부는 지난 3일 하루 동안 전·후반조 각각 2시간 파업을 진행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올해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 ▲성과급 300% 지급 ▲책임선인 신설 및 수당 8만원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내수 시장은 물론 수출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노조 파업으로 지난 2014~2018년 까지 5년간 29만여 대에 달하는 생산차질을 겪은 바 있다. 현대차의 노사갈등 극심했던 지난 2016년과 2017년의 경우 각각 24일간 파업이 이뤄졌다. 해당 기간 진행된 파업으로 2016년 14만2000대, 2017년 8만9000대의 생산차질이 발생했다. 손실 발생액은 각각 약 3조1000억원과 1조8900억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차, ‘모터스튜디오 고양’ 콘텐츠 리뉴얼

‘4D 라이드’ 재오픈... “미래비전 공유”

현대자동차 체험형 자동차 테마파크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의 대표 콘텐츠인 ‘4D 라이드’가 리뉴얼을 마치고 새롭게 오픈했다.

7일 현대차에 따르면 2017년 처음 선보인 4D 라이드는 극한의 자동차 경주인 WRC(월드 랠리 챔피언십)를 경험하는 프로그램으로, 모션 기체에 탑승해 실제 랠리를 주행하는 듯한 생동감 있는 체험으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콘텐츠다.

이번에 리뉴얼된 4D 라이드는 ‘더미션, 모빌리티 히어로즈’라는 주제로 로보틱스 등 현대차의 미래 모빌리티를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새롭게 구성됐다. 모션 기체에 탑승해 다양한 모빌리티와 힘을 합쳐 재난 속 인류와 동물들을 구조하는 스토리로, 글로벌 최신 4D 장비와 기술로 생동감을 더했다.

곡선으로 이뤄진 초대형 돔형 LED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4D 라이드 메인쇼 공간 전경

스크린, 6축 모션 플랫폼, 열,바람,물,향,연기 등 다채로운 4D 특수 효과를 활용해 글로벌 테마파크를 뛰어넘는 경험과 몰입감을 제공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4D 라이드는 현대 모터스튜디오 방문객들에게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기술을 접목해 리뉴얼했다”며 “실감나는 미래 모빌리티 체험을 통해 현대차의 미래 비전을 친근하게 느끼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SK이노베이션, MSCI ESG 평가 ‘AA’

탄소 배출저감 노력 등 긍정적 평가

SK이노베이션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선도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성과를 인정받았다.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ESG 평가 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발표한 ‘2024년 MSCI ESG 평가’에서 AA등급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AA등급부터는 ESG 경영을 선도하는 리더그룹으로 통용되며 이는 국내 정유석유화학 업계 최고 수준이다.

MSCI ESG 평가는 매년 전 세계 8500여 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경영 현황을 평가해 7개 등급(AAA-AA-A-BBB-BB-B-CCC)으로 분류한다.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의사 결정을 위한 벤치마크로 널리 활용되고 있어 금융 시장에서 영향이 크다. 특히 AA등급부터는 MSCI가 운용하는 다

양한 투자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편입되거나 비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21년 BBB 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향된 뒤, 3년 연속 A등급을 유지하다 이번에 환경, 지배구조 전 영역에서 고른 성과를 인정받으며 전체 등급이 한 단계 더 상승했다.

올해 평가에서 SK이노베이션은 ▲탄소 배출저감 노력 ▲유해물질·폐기물 관리 ▲환경경영 시스템 ▲기업윤리 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SK이노베이션 김용수 ESG 추진담당은 “MSCI ESG AA등급 획득은 단순한 평가 상향이 아니라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모든 영역에서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인정받았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ESG 활동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철강업계, 침수 등 장마철 안전사고 대응 총력

풍수해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배수로·차수벽 등 시설 점검 분주

국내 철강업계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작업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생산 제품 및 연료와 원료의 보호 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철강사들이 폭우가 장기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막기 위해 안전 점검에 분주한 모습이다. 연중 강수량의 30%가 6~7월 장마철에 집중돼 있어 해당 기간 안정적인 생산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장마철에는 지속적인 강우로 인해 지반이 연약화돼 축대 붕괴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높은 습도로 전기전도도가 상승해 감전 사고 위험이 증가한다. 강풍으로 인해 자재가 낙하하거나 작업자가 미끄러져 추락할 위험도 높다.

앞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인해 화재와 침수 피해를 본 바 있다. 당시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대부분 지역이 침수돼 전체 3개 고로 중 제3고로를 제외한 2개 고로가 가동중단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로 인해 회사의 매출감소액은 약 2조원에 달했다. 현대제철 또한 폭우의 영향을 받아 경북 포항공장의 봉형강 및 중기 제품 제조 생산을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다.

이에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태풍과 국지성 호우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잠



포스코 포항제철소 외곽에 설치된 차수벽.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원이 풍수해 대비 냉천 제방둑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포스코

재 위험을 발굴하고 작업자의 의견을 반영한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하천제방둑과 차수벽의 상태를 확인하고 비상 정전도 대비했다. 점검 중 나온 개선사항은 즉시 반영하고 유사 시 작업장 소장단위에서 유기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포항제철소 관계자는 “제철소 내 취약 개소와 위험 설비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풍수해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해 안전한 제철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제철은 지난 6월 10~21일 당진, 인천, 포항, 순천 등 전 사업장에서 점검을 마치고 상황실 운영에 돌입했다. 각 사업장 침수에 대비해 수중펌프와 모래주머니를 비치하고 배수로를 정비했다.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 설비를 이동 배치하고 누수 및 절연 여부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상태를 지속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제강은 풍수해 대응 가이드라인을 지난 6월 27일 각 사업장에 공지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우천 시 옥외작업금지, 강풍 대비 부두 측 시설물 관리 강화, 공장 출입문·창문 관리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고 침수피해 예방 구간을 점검하는 등 장마 대비에 매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철강업계는 1500도가 넘는 고로와 야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현장 안전을 위해 폭염기간 특별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BMW코리아, 샵 온라인 한정 에디션 출시

‘iX3M 스포츠 스페셜 에디션’ 등 3종

BMW 코리아가 오는 9일 오후 3시 BMW 샵 온라인을 통해 7월 온라인 한정 에디션 3종을 출시한다.

7일 BMW코리아에 따르면 강력한 성능 및 스포티한 내외관을 강조한 고성능 프리미엄 소형 SAC(스포츠액티비티쿠퍼) ‘X2 M35i xDrive 퍼스트 에디션’과 ‘X5 xDrive50e M 스포츠 스페셜 에디션’으로 온라인 판매 채널인 BMW 샵 온라인을 통해 이달 중 판매한다.

BMW X2 M35i xDrive 퍼스트 에디션은 고성능 프리미엄 소형 SAC 뉴 X2 M35i xDrive의 출시를 기념하는 한정 판매 모델이다.



BMW iX3M 스포츠 스페셜 에디션

BMW X5 xDrive50e M 스포츠 프로 스페셜 에디션은 뉴 X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모델의 한정 판매 모델로 지난 3월 BMW 샵 온라인을 통해 처음 선보인 바 있다.

BMW iX3M 스포츠 스페셜 에디션은 순수전기 SAV 모델 iX3에 다양한 M 퍼포먼스 파츠를 장착한 한정 판매 모델이다.

/양성운 기자